

2019-CR-07

작은연구 좋은서울 19-12

사람들은 왜 신촌을 떠났을까

하정희

하정희 프리랜서
unip2@hanmail.net

‘작은연구, 좋은서울’은 시민 스스로 일상 현장의 문제를 연구하고
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서울연구원의 연구지원사업입니다.



**사람들은 왜
신촌을 떠났을까**



연구책임

하정희 프리랜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차

01 연구개요	1
1_연구배경 및 목적	1
2_연구 방법	6
02 신촌의 과거와 현재	8
1_신촌의 과거	8
2_신촌의 침체기	10
3_신촌의 현재	11
03 인터뷰 : 신촌 사람들	17
1_신촌에서 돌아 본 사람들	20
2_신촌에서 오래된 사람들	24
3_다시 '신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34
04 결론 및 시사점	42
참고문헌	47

표 목차

[표 1-1] 흥대 지역의 문화적 변천사	2
[표 2-1] 신촌 연세로 일대에서 진행되는 축제(개최일순)	12

그림 목차

[그림 1-1] 서울 핵심 상권 공실률	4
[그림 2-1] 신촌 일대의 1976~1995년 건물생성분포도	10
[그림 2-2] 신촌 지역 임대료 변화 추이, 2016 신촌도시재생활성화계획	14
[그림 2-3] 신촌동 도시재생사업 지역	15
[그림 3-1] 연령대별 길 단위 상존인구 밀도	40

01. 연구개요

1_연구배경 및 목적

1) 홍대 앞 상권의 확장과 젠트리피케이션 등장

1990년대 중반까지 홍대 앞은 홍익대학교를 중심으로, 신촌과 이대 앞에 비해 개발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변두리 지역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신촌의 유동인구가 홍대 앞으로 조금씩 이동하기 시작하더니 90년대 후반 신촌 상권이 쇠퇴하면서 홍대 앞이 새로운 상업지역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홍대 앞으로 이동한 사람들은 ‘문화예술인들’이었다. 기존에 신촌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이들은 신촌의 유흥업소 단속의 강화, 특색 없는 프랜차이즈의 등장, 유동인구의 증가, 임대료 상승 등을 피해 홍대 앞으로 활동 범위를 넓힌 것이다. 그러면서 1999년 라이브클럽의 합법화로 클럽을 중심으로 하는 언더그라운드 음악으로 인디씬이 형성되었으며, 2002년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의 개최 등 홍대 앞은 그야말로 다양한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문화예술 지역이 되었다.

그러나 서울시와 마포구에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진행한 ‘견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홍대 앞의 지역 개발에 가속도가 붙었다. 2009년에는 지금의 애경백화점 자리에 위치한 칼국수 가게 ‘두리반’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철거를 반대하는 ‘두리반 투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홍대 앞 도시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가게와 개인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자리를 기업형 프랜차이즈가 채웠다.

[표 1-1] 홍대 지역의 문화적 변천사

시기	배경	문화적 특징	기타	
1950년대	• 홍익대학교 입지	• 홍대 미대 입지		
1960~70년대	• 서교택지조성사업으로 인한 주거지 형성	• 홍대 인근 주거지역의 예술가 작업실 밀집 • 언더그라운드 음악의 발생		
1980년대	• 지하철 2호선 개통	• 화방, 미술학원, 갤러리 등의 미술 관련 산업 출현 • 테크노 음악의 유입	• 산울림 소극장 개관	
1990년대	IMF 이전	• 경제적 풍요로 대중 소비 및 신세대 문화 발생 • 문화산업에 대한 관심 증대, 해외유학생 급증	• 피카소 거리 등장, 이색적 분위기의 카페 형성 • 클럽문화의 등장, 얼터너티브 록 등장 • 라이브클럽, 록카페와 같은 클럽 발생	• 아티스트에 의한 상업 공간 발생
	IMF 이후	• 경제 침체로 인한 문화 소비 활동 감소 • 인터넷 등장으로 언더그라운드 문화 발생	• 네트워크 중심의 문화 이벤트 발생 • 포스트모더니즘의 경향 (팝아트, 행위예술) • 인디밴드 클럽, 음반 활성화 • 댄스클럽 등장	•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 개최
2000년대	• '홍대 다시 살리기' 운동 • 불안정한 경제 상태로 인한 해외유학생의 귀국	• 홍대 앞 문화 활성화를 위한 자생적 운동 시작 • 유학생 유입으로 인한 댄스클럽 활성화 • 카우치 사태 이후 행정당국의 단속으로 클럽 약화	• 클럽데이, 사운드데이 • 카우치 사태	
2000년대 후반~	• 카우치 사태로 인한 행정 당국의 단속 • 대기업 자본의 유입으로 지역 예술가들의 이주	• 이전의 예술가들에 의한 자발성·독립성에 의한 문화적 특징 상실 • 주류 소비문화 위주로 개편	• KT 상상마당 개관	

(출처: 마포구청)

대표적인 사례가 2012년 리치몬드 제과점 홍대점의 폐업이었다. 건물주의 임대료 상승으로 30년간 운영해온 제과점이 문을 닫게 되고, 그 자리에 프랜차이즈 카페인 '엔제리너스 커피'가 입점한 것이다.

홍대 상권은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떨어졌지만, 대형 쇼핑몰이 유동인구를 흡수하면서 영세 자영업자가 주로 운영하는 소형 상가 공실률은 3.7%에서 17.2%로 급등했다.(조선일보, 2018.07.30.)

이처럼 대기업 자본의 홍대 유입과 대규모 상업 자본이 유입되며 기존의 홍대가 가지고 있었던 예술가와 청년에 의한 이색적이고 자발적·독립적인 문화적 실험이 상실되고, 주류 소비문화 공간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는 지역 예술가들의 타지역 이주를 본격화하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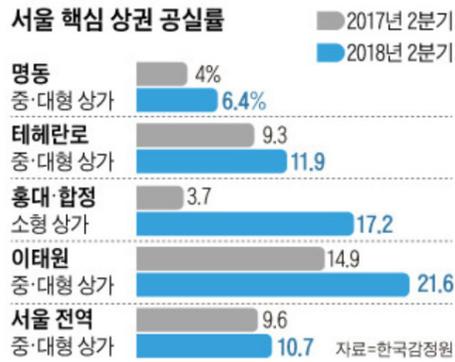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홍대 앞에 대한 예술가와 상권 사이의 단순했던 대립이 공공, 민간, 기업, 부동산 중개자, 소비자, 예술가, 건물주, 임차인 등 이권을 얻으려는 주체들로 다양화되었으며, 점차 해결해가기 어려운 현상들로 심화되었다. 이로 인해 문화예술가들은 홍대를 벗어나 상수동·망원동·성산동까지 임대료가 싼 곳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홍대 앞의 중심 상권은 유동인구의 증가와 상업화로 인해 대기업 프랜차이즈 자본이 유입되었고, 임대료와 지대의 상승에 따라 기존 홍대 문화를 반영한 특색 있는 상점들과 문화예술인들은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연남동, 합정동, 상수동 등지의 외곽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탈마포구 현상으로 까지 이어진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이주하는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어 문화 주도적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할 준비도 하지 못한 채로 홍대 앞은 그 특색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고 말한다.(서울연구원, 2019)

2) 홍대 앞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신촌을 들여다보다

홍대 앞 상권은 중심부의 높은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상수, 연남, 망원으로 팽창하고 있다. 동시에 주거 공간은 대부분 상업 공간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단순히 상권이 확장되는 것만으로 높은 임대료 상승과 매출 감소가 해결되지 않는다. 몇 년 전부터 홍대 앞 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과 홍대 앞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문화적 특색이 퇴색하면서 상권의 유동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권의 변화는 비단 홍대 앞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미 신촌이나 삼청동, 이태원 경리단길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언론에서는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과 상권의 몰락에 대해 문제성을 인식하며, ‘명동·강남·홍대… 서울 핵심 상권마저 줄폐업’(조선일보, 2018.07.30.), ‘핫플레이스 경리단길 몰락’(서울신문, 2019.09.15.), ‘광화문·이태원·홍대 줄줄이 빈 가게 늘고 있다’(서울신문, 2019.10.08.), ‘홍대·대학로… 월세 절반으로 낮춰도 안 나가요’(머니S, 2019.11.20.) 등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그림 1-1] 서울 핵심 상권 공실률



(출처 : 조선일보, 2018. 07. 30.)

[그림 1-1]의 한국감정원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 전역의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2017년 대비 2018년에 9.6%에서 10.7%로 늘었으며, 그중에서도 홍대·합정의 소형 상가 공실률이 3.7%에서 17.2%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만큼 홍대 앞 상권이 보이는 것과 달리 좋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알려준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바라봐야 할까. 무조건 부정적인 입장만 고수하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지를 해야 하는 것일까.

상권을 소비하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한 상권이 몰락하면 또다시 새로운 핫스팟을 찾아 떠나면 되는지, 그리고 해당 상권에서 생존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상권 생태계의 순환 과정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침체한 상권에서는 다시 자신들의 상권을 부흥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일까. 이처럼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거창한 사회적 담론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현상에 대해 여러 질문이 생겼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좋은 답을 해 줄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하던 차에 ‘신촌’이라는 지역을 떠올렸다. ‘신촌’이라면 그 해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는 신촌은 홍대 앞 상권 이전에 성행했던 상권으로 이미 이러한 경험을 20년 전에 했던 지역이기 때문이다.

물론 신촌 상권 침체기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생기기 전이다. 따라서 지금 신촌 상권을 보고 젠트리피케이션이 없는 지역이라고 말하기보다 이미 2000년대 초반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겪었다는 의견도 있다.(서울시, 2019)

이에 신촌이 겪었던 변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재 홍대 앞 또는 여타 상권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를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신촌 상권이 침체했을 때 신촌 상인들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리고 현재 신촌 상권은 어떤 상황인지 신촌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고자 했다.

2_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지

신촌동은 행정동으로 법정동인 대신동, 대현동, 신촌동, 봉원동, 창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신촌'이라고 부르는 지역은 연세대 정문에서 신촌역까지 이어지는 창천동 일대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창천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신촌의 상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신촌 상권은 지하철역인 2호선 신촌역에서 연세대학교 정문까지 이르는 연세로를 메인 상권으로 오른쪽에는 명물거리가, 왼쪽에는 먹자골목이 형성되어 있다.



(자료: 다음 지도 수정)

2)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사람들이 왜 신촌을 떠났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인터뷰 대상으로 삼은 ‘신촌 사람들’은 신촌의 전성기인 90년대에 신촌을 방문한 사람과 현재 신촌에서 장사 또는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새롭게 신촌에서 활동을 시작한 사람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인터뷰를 통해 과거 전성기였던 신촌의 모습과 현재의 신촌이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사람들이 신촌을 떠난 이유와 그 과정에서 느꼈던 신촌 사람들의 상실감, 현재 신촌의 변화들에 대해 들었다. 또한, 신촌을 다시 살리기 위해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들었다.

인터뷰이는 인터뷰 대상자의 지극히 주관적인 이야기이며 전체를 대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공통적인 의견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02. 신촌의 과거와 현재

1_신촌의 과거

신촌의 시대적 변화에 대해 «신촌 상권에 미치는 영향분석 _연세대학교 학생 수를 중심으로»(김지현, 2018년)라는 논문에서는 1960년대를 지역 형성기, 1970년대를 상권 형성기, 1980년대를 상권 성장기, 1990년대 후반 이후를 상권 쇠퇴기, 2014년을 상권 재 활성화 시기로 나누고 있다. 이를 통해 신촌의 전성기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라고 볼 수 있다.

신촌을 상징하는 키워드인 ‘청춘’은 이곳이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를 중심으로 가깝게는 서강대학교와 추계예술대학이 자리한 서울의 대표적인 대학가이기 때문이다.

신촌 상권은 신촌역에서 연세대학교 정문으로 이어지는 연세로를 중심으로, 이대 방향으로 명물거리까지를 일컫는다. 1980년대 이후 대형 건물들이 신축되거나 개축되면서 전성기를 맞이한 신촌 상권은 패션의 중심지였던 이대 앞 상권과는 달리 문화예술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했다.

홍대 앞을 상징하는 언더그라운드 문화도 1970년대 말 명동과 종로의 라이브 공간들이 정부의 단속으로 쇠퇴하면서 문화적 인프라가 갖춰진 대학로와 신촌으로 이동하면서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1980년대부터 신촌에는 소극장과 카페, 클럽 등에서 라이브 공연을 하기 시작했다. 이때 신촌블루스나 들국화 등과 같은 밴드들이 크리스탈 소극장과 레드제플린에서 공연을 했다.

그뿐만 아니라 80년대 중반 신촌에는 산울림 소극장, 연우 소극장, 시민 소극장과 같은 소규모 극장들이 잇달아 생겨나며 다양한 예술인들이 교류하며 ‘한국 연극의 메카’, ‘서울의 브로드웨이’라고 불리기도 했었다.

이후 1990년대 신촌의 전성기는 서울시가 신촌을 대학로와 유사한 젊음과 낭만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문화거리’ 계획을 발표하면서 가속화된다. 당시 신촌을 제2의 대학로

로 만들기 위해 공연장, 음악 감상실, 화랑, 전시장 등의 문화공간의 건축을 유도했기 때문이다.(서울역사박물관, 2017, p132, p151, p213~216) 이에 신촌은 연극, 미술,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기 좋은 지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음악 감상을 할 수 있었던 음악다방 중에서도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 곳이자, 과거 연세대학교 학생뿐 아니라 문화예술인들의 아지트로 불리던 음악다방으로 '독수리다방'도 신촌 상권이 형성되던 1971년에 문을 열었다. 당시 '독다방'으로 불리던 독수리다방은 신촌의 랜드마크로 이곳의 메모판은 지금처럼 핸드폰이 없던 시대에 중요한 소통 수단이 되곤 했다. 2005년 문을 닫은 독수리다방은 현재 창업주의 손자가 2013년 다시 문을 열어 영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출입구 앞에는 예전처럼 메모판이 놓여있다.



(사진설명 : 독수리빌딩 8층에 위치한 독수리다방 1층 입구 모습(왼쪽)과 독수리다방 출입문 앞에 있는 메모판(오른쪽))

음악다방이 기존의 음악 감상실을 이어 등장한 공간이라면, 음악다방 이후에 등장하는 새로운 문화공간은 락카페였다. 로큰롤 음악을 들으며 테이블에서 일어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으로 신촌에서 시작된 락카페는 이후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가 신촌의 전성기였던 사실은 신촌에 지어진 건물에서도 알 수 있다. 60~70년대 신촌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 정책이 시행되었는데,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신촌은 80~90년대 신축 건물들이 지어지기 시작했다. 이는 『신촌: 청년문화를 품은 개척지』(2017)의 건물생성분포도에서도 잘 알 수 있다. 1986년부터 1995년까지 신촌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신축 건물들은 최대한의 공간과 용적을 획득하기 위해 지어진 곳이 많았다고 한다. 이는 그만큼 신촌의 인구가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의 신촌역과 신촌오거리, 그리고 1984년 개통된 지하철 2호선 신촌역으로 인해 접근성이 높아진 것도 신촌이 상업지역으로서 급부상하게 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2-1] 신촌 일대의 1976~1995년 건물생성분포도



(자료 : 『신촌: 청년문화를 품은 개척지』(2017))

2_신촌의 침체기

90년대까지 문화적, 경제적 전성기를 누렸던 신촌은 2000년을 기점으로 점점 활기를 잃기 시작했다. 물론 신촌이 침체기를 겪게 된 것은 한순간에 일어난 일은 아니다.

1991년부터 서대문구청과 경찰서에서는 ‘락카페’를 단속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락카페 규제를 시작했고, 연세대학교 내에서도 ‘락카페 추방 운동’을 하기도 했다. 1992년에는 신촌 지역의 5개 대학인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홍익대학교, 명지대학교의 총장 모임에서 ‘신촌 문화의 퇴폐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며,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되면서 상당수의 락카페가 문을 닫았다.(서울역사박물관, 2017, p197) 특히 1996년 락카페 ‘롤링스톤즈’ 화재 사건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신촌 상권에 큰 타격을 주었다.

여기에 열악한 보행환경과 차량 정체, 상권 침체 등의 문제를 겪으면서 2000년대 이후 신촌은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또한, 꾸준한 임대료 상승으로 소규모 가게 이탈로

인한 공실률은 늘었으며, 특색있는 가게 대신 대형 프랜차이즈가 대부분인 유흥가로 변화기 시작했다. 반면 신촌에 있던 이색적인 가게, 예술가들은 홍대 앞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김혜원·이정옥, 2018년)

이처럼 신촌을 찾는 소비자 입장에서 갈 수 있는 선택지는 다양해진 반면, 신촌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분위기와 가게들은 높은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신촌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줄어들었고 자연스럽게 침체기를 겪게 되었다.

3_신촌의 현재

예전 같지 않은 신촌을 두고 사람들은 ‘어쩌다 신촌이 이렇게 되었나’ 안타까워한다. 특히 80~90년대 신촌에서 20~30대를 보낸 이들은 과거의 신촌을 그리워하며 신촌을 추억하기 위해 찾아오기도 한다.

그런 신촌이 변화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1년 서울시는 ‘사람과 대중교통이 우선하는 도시환경 조성’을 교통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는데 이를 위해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도입, 2012년 신촌 연세로를 서울시의 첫 대중교통전용지구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이후 신촌 연세로의 대중교통전용지구 사업은 신촌역이 있는 신촌오거리부터 연세대학교 정문까지 이어지는 연세로와 현대백화점에서 세브란스 병원까지 이어지는 명물거리에서 진행되었고, 2014년 1월에 ‘차 없는 거리’가 실시되었다.(김혜원·이정옥, 2018년 / 서울역사박물관, 2017) 이후 연세로는 지정된 노선버스 외의 모든 자동차는 진입이 금지되었으며, 금요일 2시부터 일요일 밤 10시까지 노선버스 운행도 금지되고 있다.



(사진설명 : 신촌역 연세로 초입에 설치된 차 없는 거리 안내 표지판(왼쪽)과 연세로 모습(오른쪽). 연세로에는 평일에는 지정된 노선버스를 제외한 자동차 운행이 금지되었다.)

차보다는 보행자를 우선하는 신촌 연세로의 차 없는 거리 시행으로 인해 연세로에서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특히 서대문구청은 차 없는 거리가 시행된 이듬해인 2015년부터 음악 콘서트, 문화경연, 축제 등 여러 문화행사를 진행했는데, 현재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연세로에서 총 10개의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표 2-1] 신촌 연세로 일대에서 진행되는 축제(개최월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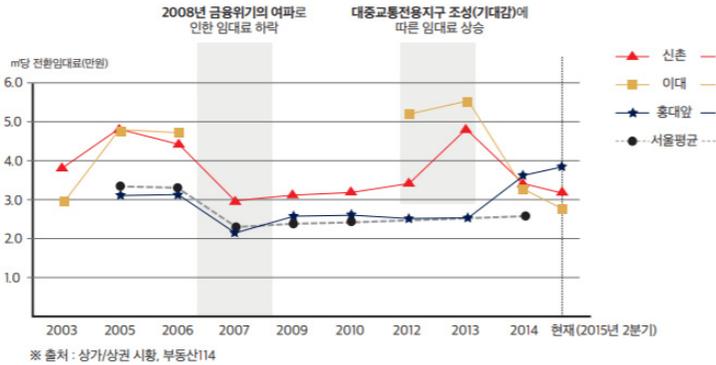
축제명	일시	내용
왈츠 페스티벌	5월	- 2015년부터 서대문구와 (사)인씨엠예술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축제 - 전문 댄스팀의 공연을 비롯해 일반인들도 왈츠를 체험할 수 있음. 선착순으로 드레스와 턱시도 등 의상을 무료로 대여하며, 행사 전 기본 동작과 스텝을 배울 수 있어 누구나 참여 가능
윈드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5월	- '윈드 오케스트라'는 관악기와 타악기로 꾸며진 합주단을 의미 - 축제 당일 신촌 주변 대학교의 합주단원들이 대중에게 친숙한 클래식과 곡에 대한 해설로 관객들의 이해를 도움
프랑스 거리음악 축제	6월	- 프랑스와 한국 뮤지션의 음악공연으로 다양한 장르의 앙국음악문화교류를 위해 개최되는 축제 - 프랑스와 관련된 문화존, 플라워마켓, 먹거리존 등 풍성한 부대행사와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음
신촌 물총축제	7~8월	- 일 년 중 가장 무더운 7~8월 사이에 시작되는 축제로 신촌을 대표하는 여름 축제로 자리 잡음 - 2013년 처음 시작, 매년 수만 명의 사람이 참여하고 있음. 최근에는 외국인의 참여가 늘었음

축제명	일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퍼레이드&퍼포먼스, 버블파티 및 DJ 공연, 포토존 등 다양한 콘텐츠에 스토리텔링을 가미해 매해 새롭게 진행됨.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 다만 탈의실과 물품보관소 등은 유료임
맥주축제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뮌헨의 세계적인 맥주축제 '옥토버페스트'를 벤치마킹한 축제로 2015년부터 시작함 - 축제 당일 국내 100여 종의 수제맥주와 세계맥주 등 우리가 몰랐던 맥주의 맛을 폭넓게 즐길 수 있음
신촌동 문화 축제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주민들이 직접 준비하고 참여하는 지역 축제 - 지역 내 각 직능단체, 상인회, 일반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와 자치회관 등에서 공연프로그램을 준비해 운영됨 - 행사장에서는 주민 장기자랑, 자치회관 프로그램발표, 밴드공연, 먹거리나눔, 직거래장터, 포토존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있음
댄스 경연 대회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트릿 댄서들의 댄스경연대회로 재능 있는 댄서들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 만들어짐 - 힙합, 비보이 등 다양한 장르의 창작 댄스 퍼포먼스를 겨루며 서로의 열정과 끼를 확인할 수 있음. 대회는 학생부, 성인부 등으로 나누어 진행됨
김현식 가요제	10~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수 김현식의 노래를 테마로 한 음악 경연대회의 가요제 - 한국 가요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곡들을 부른 김현식은 생전 '신촌블루스'로 활동하는 등 신촌과의 인연이 깊음. 이에 가요제는 고인 음악 세계를 이해하고 신진 가수 발굴을 목적으로 매년 가을에 신촌에서 개최됨 - 입상자에게는 상금과 디지털 싱글앨범 발매 기회가 주어짐
크리스마스 거리 축제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 23일부터 25일까지, 특별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과 축제를 흥겹게 하는 콘서트,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인형극과 크리스마스마켓이 볼거리를 제공하는 축제 - 1년 중 조명으로 가장 화려해지는 달 12월이 되면 신촌 전철역부터 연세대 앞에 이르는 연세로의 약 500m 구간은 화려한 조명과 장식으로 꾸며짐
클래식 콘서트	연중 (월1회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촌 연세로 스타광장에서는 클래식 대중화 및 자변확대를 위한 취지로 콘서트를 개최 - 콘서트에서는 성악과, 바이올린 연주,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무대 등 다양한 스토리로 진행됨

(자료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신촌 연세로가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선정되고, 2014년 차 없는 거리가 되자 사업 초기에 기대했던 신춘 상권의 활성화에 대한 지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림 2-2]에서 알 수 있듯이 2015년에 조사한 신춘 지역 임대료 변화 추이를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하락했던 임대료가 2012년 신촌이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선정된 이후부터 2013년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2] 신촌 지역 임대료 변화 추이, 2016 신촌도시재생활성화계획



당시 서대문구청장이었던 문석진 구청장은 “대학문화가 살아있는 열린 광장으로 바뀌었다”고 말하며 스스로 모이고, 서로 대화하고,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광장이 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아시아경제, 2014.12.22.)

BC카드에서 연세로 주변의 1,041개의 가맹점을 집계한 결과, 대중교통전용지구 시행 후 전년 대비 월평균 매출액은 4.2% 늘었고, 이용객은 24%, 매출건수는 11%로 증가했다. 상인들의 만족도도 34%에서 41%로 늘었다.(건축과 도시공간(Vol. 18), 2015)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도 전년 대비 34%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민들의 만족도도 조성 전 58%에서 70%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아시아경제, 2014.07.28.)

이후 서대문구청에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4년에 걸쳐 ‘신촌동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했다. 신촌동 도시재생사업은 [그림 2-3]에서 보는 것처럼 신촌역 일대 약 432,629.9㎡에 걸쳐 ‘젊음과 활력이 살아있는 컬러 밸리, 신촌’을 만들기 위해 활기차고 생산적인 청년문화 창출, 신촌 상권의 활력 및 회복 강화, 공공 공간 및 주거 공간의 양질화, 공동체 간의 협업 및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진행되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문화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청년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이를 활성화 시키면 지역 상권도 동반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인사이드케이ابل, 2020.06.23.)

이처럼 신촌동 도시재생사업은 2016년 ‘창작놀이센터’, 2017년 ‘청년창업꿈터’, 2018년 ‘신촌문화발전소’, 2019년 ‘파랑고래’ 등을 개관하며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더 많은 청년이 신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다.

[그림 2-3] 신촌동 도시재생사업 지역



(자료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이외에도 2014년에 신촌 플레이버스, 2016년에 이화쉼터, 공공임대상가인 '신촌 박스퀘어' 등을 열면서 침체된 신촌을 살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신촌 콘텐츠 개발의 일환으로 '김현식 골목길'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이는 故김현식 씨를 통해 통기타 문화의 거리 신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설명 : 2019년 창천문화공원에 개관한 '파랑고래'(왼쪽)와 김현식 골목길 리플렛(오른쪽)>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상가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 사업에 신촌이 선정되었다.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상

점은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디지털 기술이 보급될 예정이다. 이 사업에 대해 신촌상인회의 홍성호 회장은 상인들도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며 스마트상가 사업 선정으로 인해 신촌 상권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신촌 물총축제

신촌 물총축제는 1년 중 가장 무더운 7월에 1박 2일에 걸쳐 개최되는 신촌 대표 축제다. 2013년 7월 27일에 제1회 신촌 물총축제가 신촌 연세로와 명물거리에서 시작했으며, 2019년까지 총 7번의 축제를 진행했다.

도심 한복판에서 참가자 누구나 마치 동심으로 돌아간 듯 신나게 물총을 쏠 수 있어 국내는 물론 해외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름 축제로 성장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2020년에 예정된 여덟 번째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었다.



(자료 : 신촌 물총축제 페이스북)

03. 인터뷰 : 신촌 사람들

인터뷰 배경 및 목적

- 신촌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촌 사람들에게 직접 듣다

신촌에 대한 연구는 이미 여러 연구자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대학가 상권을 형성한 최초의 지역(서울역사박물관, 2017, p102)인 신촌이 요즘 서울의 여러 상권이 겪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먼저 경험한 지역으로서 여러 상권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권의 침체기를 거치며 어떻게 상황을 극복했는지, 또 현재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는 데 집중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정량적 조사가 아닌 정성적 조사 방법 중 하나인 ‘인터뷰’를 통해 신촌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금의 ‘신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다. 즉,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나 연구를 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닌 실제로 신촌 문화를 향유하고, 신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접근해 그들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듣는 데 집중했다.

인터뷰를 관통하는 질문은 연구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왜, 신촌을 떠났을까?’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문화 중심지 신촌에서 침체기를 거치며 현재에 이른 신촌에 대해 신촌 사람들은 왜 사람들이 신촌을 떠났다고 생각하는지, 신촌 상권이 흥대 앞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고 그 내용을 담고자 했다. 또한, 관 중심의 축제나 행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행사가 신촌 상권을 살리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생기기 이전에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갈등 등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리고 지금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중요한 질문 중 하나였다.

- 인터뷰 대상자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진행

연구 방법을 인터뷰로 정하고 난 후 그다음 문제가 바로 인터뷰 대상자인 ‘신촌 사람들’에 대한 정의였다. 어떤 사람들을 ‘신촌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에 신촌 사람들을 신촌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라고 정하고, 세 가지로 나눠 진행했다.

먼저 과거 신촌이 침체하기 전인 90년대 신촌 문화를 소비하며 신촌을 추억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신촌에서 놀아 본 사람들’을 만났다. 두 번째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신촌에서 장사나 활동을 하는 ‘신촌에서 오래된 사람들’을 만났고, 세 번째는 ‘다시 신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신촌에서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고자 했다.

세 가지 유형으로 총 6명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우선 신촌에서 놀아 본 사람들로는 90년대 신촌을 소비했던 사람으로, 신촌에 대한 추억이 있는 40대의 송선영, 김장현 씨를 만나 90년대에서 2000년으로 넘어오던 당시의 신촌은 어떤 곳이었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신촌을 찾지 않게 되었는지 물었다.

두 번째 신촌의 오래된 사람들로는 오랫동안 신촌을 생활 터전으로 삼고 있는 우드스탁의 문진웅 대표와 신촌 상인의 3분의 1이 가입하고 있는 신촌상인회의 홍성호 회장을 만나 과거의 신촌과 지금의 신촌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러한 신촌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세 번째인 다시 신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서는 2018년과 2019년 신촌에서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한 신촌 거리 예술축제를 기획하고 실행한 최계바라 기획사(현, 문화기획 3456)의 정경원 씨와 2017년 신촌에 신촌극장을 오픈한 전진모 대표를 만나 젊은 예술가들이 활동하기에 신촌은 어떤 곳인지 물었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연구 초반에 ‘신촌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신촌에서 장사했거나 신촌을 기반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했던 사람 중 신촌을 떠난 사람을 만나고 싶었으나 인터뷰 대상자를 발굴하고 섭외하는 것이 쉽지 않아 연구 중간에 포기해야 했다는 점이다. 또한, 올해 초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연구 진행이 수월하지 않았던 점도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인터뷰의 특성상 대면 인터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촌 상권의 상인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5월에 이태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인터뷰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인터뷰 일정이 급작스럽게 연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비대면 인터뷰 방법에 대해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기존에 일면식이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왜 신촌을 떠났을까'라는 인터뷰를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았다. 더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 점은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 인터뷰 진행 일정(목차순)

연번	인터뷰 유형	일시	장소	인터뷰 대상자
1	신촌에서 돌아 본 사람들	2020. 02. 10	신촌역 앞 투썸플레이스	송선영 (40대 후반, 신촌 토박이)
2	신촌에서 돌아 본 사람들	2020. 03. 31	망원동 인근 카페	김장현 (40대 초반, 90년대 신촌 에서 10대를 보내다)
3	신촌에서 오래된 사람들	2020. 06. 24	우드스탁	문진웅 (우드스탁 대표)
4	신촌에서 오래된 사람들	2020. 06. 18	신촌상인회 사무실	홍성호 (신촌상인회 회장)
5	다시 '신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2020. 06. 02	문화기획3456 사무실	정경원 (신촌거리예술축제 기획자)
6	다시 '신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2020. 07. 23	독수리 다방	전진모 (신촌극장 대표)

1_신촌에서 놀아 본 사람들

1) "신촌의 자유분방한 문화가 사람들을 끌었다"

송선영 씨(40대 후반, 신촌 토박이)

어린 시절부터 신촌에 거주한 송선영 씨는 신촌 토박이다. 20대까지 주로 신촌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던 그는 신촌의 레드제플린, 우드스탁에서 DJ로 일 했었다.

송선영 씨에게 신촌은 거주 공간이자 문화공간이었다고 한다. 2000년대 초반까지 신촌을 주 무대로 활동했던 그는 당시 신촌이 메인 상권으로 홍대는 신촌에서 파생된 지역이었다고 한다. 신촌에서 놀다 홍대로 넘어가는 등 하나의 지역으로 움직였다는 것이다. 다만 신촌이 소위 뜨는 동네가 되고 외부에서 신촌으로 놀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개성 강한 신촌 사람들이 그들과 차별을 두기 위해 홍대로 옮겨가기 시작했고, 그 횡수가 늘면서 새로운 홍대 상권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그는 사람들이 신촌을 떠난 것은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부터 신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개인의 취향이 다양해지면서 신촌 외에도 홍대나 이태원, 강남 등 자신의 취향에 맞는 곳을 찾아 흩어지면서 신촌을 찾는 사람들이 줄었다고 한다.

Q. 선영 씨에게 신촌은 어떤 곳이었나요.

80년대 신촌은 신촌 시장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된 동네였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현대백화점이 있던 곳도 신촌 시장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특히 저는 집이 신촌이었고, 부모님도 신촌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신촌은 생활 공간인 동시에 문화공간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워낙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지역으로 서민들의 놀이터 같은 곳이었습니다.

Q. 그러다 본격적으로 신촌에서 놀기 시작한 때는 언제인가요?

스무 살부터예요. 1991년도가 스무 살이 되던 해였는데, 그때부터 친구들과 신촌에서 술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롤러스케이트장도 갔습니다. 신촌에서는 그 모든게 가능했어요. 그러다 전환점이 된 시기가 1997년 김대중 정권이 들어오면서부터 입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야간 영업을 하면 안 됐어요. 신촌 상권이 커지다 보니 97년 전까지는 경찰 단속이 심해 젊은 애들이 단속을 피해 조금씩 홍대에 가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나

도 신촌에서 아르바이트하다 끝나면 홍대에 가서 술을 마셨어요. 그래도 2002년까지는 신촌에서 주로 놀았던 것 같습니다.

Q. 그때는 왜 신촌에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나요?

대학가이다 보니 팡팡 튀는 애들이 많았어요. 술집도 많고, 클럽도 있었으니까요. 사실 홍대 클럽의 전신은 신촌 클럽부터 시작해요. 신촌에서 ‘락바’라고 불리는 곳에서 음악도 듣고 춤도 쳤어요. 굉장히 자유로웠죠. 디제이들이 음악을 틀어주기도 하고,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신청할 수도 있었는데, 확실히 나이트클럽과는 달랐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재미있는 것을 쫓아다니잖아요. 그때 신촌은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때 제가 신촌에서 주로 다녔던 곳이 레드제플린과 우드스탁이었습니다.

Q. 왜 신촌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줄었다고 생각하나요? 어쩌다 홍대로 옮겨갔다고 생각하나요?

외부에서 보면 신촌, 이대, 홍대가 다 다르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처럼 신촌에서 태어나 신촌에서 쪽 살아온 입장에서는 그 세 곳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신촌에서 놀다 홍대에서 노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그런데 굳이 이유를 찾자면, 신촌 상권이 뜨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 기존에 신촌에 있던 토박이들이 거부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한 마디로 ‘물을 흐린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면서 신촌에서 홍대로 옮겨갔습니다. 그러자 다시 사람들이 홍대로 따라서 오더라고요.

또 다른 이유는 사람들이 점점 개인의 취향을 중요시했기 때문입니다. 대중적 취향보다는 자신만의 취향을 찾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신촌 상권이 여러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분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 "10대 시절 신촌은 우리들의 놀이터였다"

김장현 씨 (40대 초반, 90년대 신촌에서 10대를 보내다)

김장현 씨는 망원동 주민으로 신촌에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에게 신촌은 새로운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곳이었다. 당시 그가 신촌과 관련해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인근에서 처음으로 KFC와 맥도날드가 신촌에 생긴 것이다. 신촌에 와야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놀 수 있었다고 말하는 그가 신촌을 찾지 않기 시작한 것은 군 제대를 한 2000년대 초반이었다고 한다. 더는 신촌의 문화가 새롭지 않게 느껴지면서 사람들은 신촌이 아닌 홍대로 모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사람들이 신촌을 떠난 이유에 대해 첫째는 신촌이 사람들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바뀌면서 노는 방식도 변했는데 그걸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두 번째는 젠트리피케이션이다. 당시에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개념도 없을 때였지만 가게 임대료가 높아지면서 개성 있는 가게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프랜차이즈가 들어서면서 신촌만이 가지던 독특함이 사라졌다고 한다.

Q. 신촌을 가장 많이 방문했던 시기는 언제인가요.

집이 망원동이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주로 놀았던 지역이 신촌이었습니다. 그때 신촌에 KFC와 맥도날드가 막 생겼어요. 그에 비하면 망원동이나 홍대는 변두리였죠. 놀 거리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신촌에 가야 놀만 한 게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신촌에 가서 놀았습니다.

Q. 당시, 신촌은 어떤 곳이었나요?

어렸지만, 신촌은 새로운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곳이었어요. 당시 일본의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패션 등을 접하기 위해서는 신촌에 가야 했습니다. 청소년이었던 우리에게 신촌은 그야말로 새로운 것투성이었습니다.

Q. 그러다 신촌에 발길이 뜸해진 것은 언제부터였나요?

군 제대 후부터였던 것 같아요. 20대 초반이었는데 어느 순간 신촌이 새롭지 않더라고요. 더 이상 신촌에 노는 게 재미가 없었어요. 그때가 2000년대 접어드는 시기였는데, 조금씩 신촌에서 홍대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Q.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신촌을 떠났다고 생각하나요?

굳이 이유를 꼽자면 신촌이 시대의 변화를 잘 반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바뀌면서 노는 방식도 바뀌었는데 신촌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20대였던 저에게 신촌은 더는 재미있는 곳이 아니었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곳을 찾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는 젠트리피케이션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개념이 없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높아지는 임대료에 괜찮은 가게들은 빠져나가고, 거기에 비슷비슷한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오면서 신촌다운 모습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젠트리피케이션과 비슷한 현상이 당시 신촌에 생겼던 것 같아요.

Q. 신촌을 떠올리면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가 있나요?

신촌 기차역이죠. 그땐 이대와 신촌을 잇는 곳으로 신촌 기차역이 가장 변화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의 신촌 기차역의 모습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히려 그대로 두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맥도날드 신촌점

맥도날드 신촌점은 한국 맥도날드를 상징하는 점포다.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미팅이나 소개팅 장소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10대들 역시 방과 후 신촌점을 찾아 친구들과 햄버거를 즐기곤 했다. 맥도날드의 경우에도 신촌점 성공을 발판으로 대학가 상권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바 있다.

(인사이트, 2018.03.14.)

2_신촌에서 오래된 사람들

1) “신촌만의 매력을 잃어버리면서 사람도 떠나기 시작했다”

우드스탁, 문진웅 대표

1992년에 문을 연 우드스탁은 신촌을 대표하는 록카페다. 같은 자리에서 29년 동안 우드스탁을 운영해오고 있는 문진웅 씨에게 신촌은 80~90년대 가난한 청년들이 주춤 모여 시대의 울분을 토하던 토론장이었고, 통기타 문화가 있던 문화공간이었다. 돈이 없어도 술을 마실 수 있었던 신촌은 90년대까지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가장 장사가 잘되는 지역이었다고 한다.

그러던 신촌의 기세가 꺾이기 시작한 시점은 2000년 이후다.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록카페’에 대한 일제 단속으로 신촌 상권이 주춤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신촌만의 개성은 사라지고, 많은 가게가 홍대 앞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노숙자와 성범죄자, 삐끼들이 즐비하던 창천문화공원에 ‘파랑고래’라는 공간이 생기기도 했고, 서대문구청에서는 신촌 골목길 지도도 만드는 등 신촌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신촌 상권이 휘청한 경험 때문인지 요즘은 건물주의 횡포도 많이 줄어든 것 같다는 문진웅 씨. 사람들이 신촌을 빠져나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신촌 사람들 스스로 신촌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Q. 우드스탁이 신촌에 문을 연지도 어느새 29년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자리를 옮기지 않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1992년 2월 14일에 정식 허가증이 나오면서, 이곳에서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29년이러니, 시간이 그렇게 흘렀는지 몰랐는데 어느새 30주년을 앞두고 되었네요.



〈사진설명 : '우드스탁'은 신촌을 상징하는 공간이 되었다.〉

Q. 대표님이 우드스탁을 열었던 1992년의 신촌은 어떤 곳이었나요?

신촌의 위상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높았습니다. 신촌에서 가게를 하면 자식들 대학은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전국에서 신촌으로 장사를 하러 왔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임대료가 상당히 높았어요. 높은 임대료를 내기 위해 낮에는 커피를 팔고, 저녁엔 술을 팔면서 밤늦게까지 장사하는 가게들이 많았어요.

80년대, 90년대 신촌은 주점 문화가 있었어요. 막걸리나 전 같이 싸고 양 많은 주점이 인기가 많았죠. 젊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주점에 모여서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땐 지금처럼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촌 주점에 모여 나라에 대한 불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안줏거리가 되던 시대였어요.

여기에 통기타 문화도 빠질 수 없죠. 80~90년대 신촌은 돈이 없어도 친구를 만나고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곳입니다.

Q. 우드스탁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우드스탁을 한다고 했을 때는 대기업에서 과장 직급을 앞두고 있을 때였죠. 제 주변의 모든 사람이 제가 장사를 한다고 하자 반대했어요. 어머니와 아내를 제외하고요. 미술을 전공하면서 자연스럽게 음악을 좋아하게 됐어요. 좋은 음악을 트는 가게를 하고 싶었죠.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우드스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91년도에 가게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은 곳을 다녔어요. 특히 1층에 위치한 공간을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당시 음악을 트는 가게들은 대부분 지하에 있었는데,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그렇게 찾은 곳이 지금 우드스탁입니다. 제가 목수 아저씨 2명과 함께 만들었어요. 20일 동안 가게에서 먹고 자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만들었어요.



〈사진설명 : 우드스탁 문진웅 대표. 올해로 29년째 우드스탁을 운영하고 있다.〉

Q. 우드스탁의 인기가 정말 대단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드스탁을 시작하고 1년 반 정도 있다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났습니다. 전국의 기인들이 우드스탁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3년 4개월 동안 하루도 가게를 쉰 적이 없을 만큼 일을 했어요. 그때 우드스탁은 늘 사건 사고가 터졌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으면 이상했어요.

우드스탁에서 만나 결혼한 커플만 대략 400쌍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제가 직접 간 결혼식이 350쌍이 넘습니다. 그때 오시던 분들이 50살이 넘는 지금도 오세요.

Q. 그만큼 위상이 대단했던 ‘신촌’이 언제부터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을까요?

밀레니엄이 지난 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락카페’에 대한 일제 단속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신촌 상권이 주춤하기 시작했습니다.

Q. 그런 와중에도 우드스탁은 한 번도 위치를 옮기지 않으셨던 거죠?

가게를 옮길 뻔한 상황은 여러 번 있었어요. 제가 29년 동안 가게를 하면서 건물주가 3번 바뀌었습니다. 그중에는 정말 악덕 건물주도 있었어요. 첫 번째 건물주였는데, 우드스탁을 정말 싫어했어요. 1년에 2천만 원씩 임대료를 올릴 정도였으니까요. 몇 번이나 쫓아내려고 했지만 결국은 본인이 건물을 팔고 떠났습니다.

지금도 보증금만큼은 신촌에서 가장 높은 층에 속할 거예요. 물론 상대적으로 월세는 적지만 말이죠.

Q. 요즘 젠트리피케이션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촌도 젠트리피케이션을 경험한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님은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또한 공간을 임대해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악습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속담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가져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젠트리피케이션은 단순히 건물주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구조적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악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건물주는 건물주의 소양을, 임대인들은 임대인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빈대떡을 팔아도 빈대떡에 대한 나름의 소양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우드스탁을 운영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소양을 갖춰야 길게 갈 수 있어요.

저는 주변 지인들이 장사한다고 하면 먼저 건물주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간이 아무리 좋아도 덜컥 계약하지 말고 건물주가 어떤지 먼저 살펴보라는 거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불안한 마음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편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Q. 대표님이 보시기에, 요즘 신촌은 어떤가요?

최근 들어 신촌에 대한 재조명 붐이 불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신촌 관련해 인터뷰만 지금까지 5번째입니다. 작년에는 노숙자와 성범죄자, 삐끼들이 즐비하던 창천문화공원에 ‘파랑고래’라는 공간이 생기기도 했고, 서대문구청에서는 신촌 골목길 지도를 제작하는 등 신촌만의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주의 횡포도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밀레니엄 이후 신촌 상권이 휘청하면서 제대로

한 방을 맞은 경험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언젠가 한 번은 서대문구청에 위생교육을 받으러 간 신촌 상인들에게 서대문구청장님이 흥대로 가지 말아 달라고 하신 적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촌을 빠져나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게 신촌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Q. 앞으로 신촌 상권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사람들이 신촌을 떠난 것은 신촌만의 매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음식이면 음식, 놀이면 놀이 등 어느 상권이든 매력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신촌에 그런 것들이 없어진 거죠. 치킨 하나를 팔아도 여기는 다르구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느 프랜차이즈와 다를 게 없다면 굳이 신촌을 와야 하는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는 제가 처음 장사를 시작하던 때처럼 가게를 해서 돈을 벌 수는 없어요. ‘내가 장사하면 잘 될 거야’라는 자신감은 20세기 적인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기꺼이 신촌에 와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합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자리를 지키는 가게가 많을수록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추억’을 이야기하며 그 존재로도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드스탁

북적이는 홍대 앞 거리가 힘에 부칠 시간, 자리를 옮길 때가 됐다. 새벽 1시, 홍대 앞은 절정이지만 침침해가는 서울 신촌 상권은 슬슬 문을 닫기 시작한다. 지난 2월 29일 개업 21돌 파티가 열린 신촌 ‘우드스탁’ 골목은 더욱 킁킁했다. 1990년대 학번이 대중문화의 용단폭격을 맞을 즈음 그 중심에 있던 음악 카페들의 거리다. 무엇이든 소비할 자세가 돼 있던 당시 세대는 ‘진짜 음악을 파는’ 가게를 찾는 데도 열중했다. 수천 장의 LP 레코드와 대형 스피커를 갖춘 음악 카페들은 청중이 헤드뱅잉하는 라이브 공연장을 닮아 있었다. 말하자면 ‘우드스탁’은 문화적 자부심이 충만한 1990년대의 아지트였던 셈이다.

(한겨레21(제901호), 2012.03.07.)

2) “상인들도 능동적인 태도로 신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신촌상인회, 홍성호 회장

홍성호 회장은 2017년부터 신촌상인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촌상인회는 현재 신촌 상인의 약 1/3이 참여하며, 투명한 운영을 위해 2019년에 법인으로 전환했다. 법인 전환의 또 다른 이유로 그동안 관 중심의 수동적인 태도에서 탈피해 상인회 중심으로 능동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홍성호 씨는 신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신촌상인회가 직접 기획하거나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신촌 상권이 다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상인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신촌의 상권이 2000년을 기점으로 침체되었다고 한다. 그 이유로 기업형 프랜차이즈의 신촌 진출을 꼽았다. 기업형 프랜차이즈의 진출은 지역의 임대료 상승을 부추겼고, 소규모 가게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는 곧 개성 있는 가게들이 폐점하거나 이전하는 원인이 되었고, 동시에 신촌의 상권을 쇠퇴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과거 신촌뿐만 아니라 지금 홍대나 이태원 등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한동안 침체기에 빠져있던 신촌은 요즘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고 말하는 그는 그 기저에 상인들의 마인드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신촌에서 진행되는 여러 활동을 통해 사람들의 관심이 다시 신촌으로 오고 있다고 말하는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상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에게 맞는 것을 찾아 나간다면 지금보다 더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Q. 안녕하세요. 먼저 신촌상인회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신촌상인회는 2017년 12월에 정식 출범했습니다. 물론 기존에도 신촌의 상인들을 대표하는 신촌 상인 번영회가 직능단체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인회가 신촌의 여러 축제에 참여하면서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생겼습니다. 이에 2017년 신촌상인회를 출범하고 1년여 동안 법인 등록을 위한 준비를 한 후, 2019년 2월에 신촌상인회 이름으로 법인 등록을 마쳤습니다. 현재 신촌상인회에는 신촌 상인의 1/3에 해당하는 약 400여 명이 가입했고, 별도의 회비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Q. 법인 등록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상인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죠. 예전처럼 관 주도의 수동적인 자세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신촌에서는 1년에 4번 큰 축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상인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5월에는 신촌야행, 7월에는 물총축제, 9월에는 맥주축제, 12월에는 크리스마스 거리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5월에 열리는 신촌야행은 신촌상인회가 법인 등록 후, 직접 기획한 축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에 서대문구청에서 진행하던 크리스마스 거리축제도 상인회가 참여하면서 이제는 구청에서도 우리 상인회를 믿고 맡겨주실 정도입니다.

이처럼 신촌에서 일어나는 여러 행사에 상인회가 참여하게 되었고, 필요에 따라 예산을 직접 집행하면서 법인 전환을 통한 투명한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상권은 계속 변화합니다. 그런 변화에 우리 신촌 상인들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우리 신촌 상권에 관련한 정책을 이야기할 때 협상 테이블에 앉아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신촌상인회를 법인 등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진설명 : 신촌상인회 홍성호 회장은 신촌 상권이 다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인들도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Q. 법인으로 전환한 후 달라진 게 있나요?

상인회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만해도 기존에는 생업과 상인회 일을 같이 봐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상인회 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상인회가 법인 전환 되면서 저는 상인회 회장으로서는 상인회 일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촌 상인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더 많은 고민과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지자체 중심의 수동적인 상인회였다면 법인 등록 후에는 저희가 먼저 사업을 제안하기도 하는 등 상인회 중심의 능동적인 활동이 가능하게 된 거죠.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스마트시범상가’ 선정에 우리 신촌 상가 20곳이 선정된 것도 상인회가 적극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Q. 신촌상인회의 법인 등록에 대해 상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기존 상인회와 별반 다르지 않겠지 생각한 것 같아요. 회비를 걷지 않으니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걱정도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상인회가 법인 등록하고 1년이 지난 지금 ‘뭔가 다르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신촌에서 축제를 해도 상인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참가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는 참여하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참여율이 0이었다 20%로 늘었어요. 축제에 참여하면 힘들긴 하지만 가게 홍보가 되고, 매출도 나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신 거죠.

Q. 회장님이 보시기에 신촌의 상권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것은 언제쯤부터인가요?

저는 2000년을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년 이전에는 신촌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대학가의 상권이 모두 좋았어요. 그런데 2000년으로 넘어가면서 소위 잘나가는 상권에 기업형 프랜차이즈가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서 신촌이 가장 대표적이죠. 신촌에 가장 먼저 기업형 프랜차이즈의 1호점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요. 당시 신촌의 임대료 시세가 보증금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 월세가 2백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기업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서 보증금과 월세가 올라갔어요. 지금은 평균 월세가 700만 원 정도 합니다. 물론 중심 상권인 연세로의 경우에는 더 높고요. 그래서 연세로의 경우 기업형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은 진입할 수조차 없습니다.

Q. 그때부터 신촌의 개성 있는 가게들이 사라지게 되었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현상은 비단 신촌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의 홍대도 마찬가지죠. 홍대도 기업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서 연남동, 망원동으로 상권이 확장되었잖아요. 이는 개성 있는 가게들이 높은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자꾸 옆으로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상권이 확장되는 것인데, 그럼 또 그걸 가만두지 못하고 기업들이 진출하는 거죠. 이태원, 대학로, 가로수길, 삼청동 등 모두 그런 과정을 밟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촌 상권이 침체한 또 다른 요인은 연세대 송도 국제캠퍼스 이전입니다. 2010년부터 이전을 했는데, 그때 타격이 컸습니다. 대학 상권에서 학생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Q. 요즘 신촌 분위기는 어떤가요?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는 과거에 비해 많이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세였어요. 그러다 코로나 때문에 주춤하고 있죠. 아무래도 학교 수업이 이뤄지지 않으니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상인들의 마인드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무조건 큰 매장을 선호했다면 요즘은 소규모 매장을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제는 장사를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자신의 분야에서 장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몸집을 줄여서 임대료와 인건비를 줄여나가야 버틸 수 있습니다.

Q. 신촌 상권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럴 수 있었던 요인으로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여러 정책들도 도움이 되었을까요?

그렇죠. 일단 신촌에서 크든 작든 뭔가를 한다는 게 좋은 거죠. '신촌에서 뭔가를 하는구나'라는 움직임을 보여주면 좋죠. 일회성 행사라도 신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뭐라도 하면서 우리에게 맞는 걸 찾아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안 되죠.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신촌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으니까요. 특히 지자체의 노력 덕분에 신촌이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것만으로도 기본은 갖춰졌다고 봅니다. 한 번 온 손님을 두 번, 세 번 계속 오게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상인들의 몫입니다. 신촌에 대한 일회성 관심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개별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Q.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자체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분리해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19 지원도 전통시장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Q. 앞으로 신촌상인회의 활동 계획이 궁금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준비했던 축제들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바람이라면 12월에 하는 크리스마스 거리축제를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신촌 상권이 활성화되기 위해 상인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그에 따라 우리 상인회도 변화해 나갈 것 입니다.

3_다시 ‘신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1) “신촌은 신진예술가를 위한 예술축제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해요”

신촌거리예술축제 기획자, 정경원 씨

2018년 제1회 신촌거리예술축제가 열리는 모습을 보며 신촌에 다시 젊은 예술가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도 흔히 접하기 힘든 행위 예술과 같은 거리예술 축제가 신촌에 열린 것은 의미가 있다.

이 축제를 기획한 최계바라 기획사의 정경원 씨는 2018년에 이어 2019년에 ‘제2회 신촌거리예술축제’를 진행하며 젊은 신진예술가들을 위한 축제의 장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고 한다. 그동안 신촌이 주 활동무대가 아니었다는 그는 직접 신촌에서 거리예술축제를 진행하며 유동인구가 많고, 공간이 넓어 축제를 진행하는 데 장점이 많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축제를 진행하는 인근 상인들과의 관계를 푸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도 한다. 서대문구청과 신촌상인회와 협의를 했지만, 막상 당사자인 상인들은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마찰이 생기기도 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회가 거듭될수록 풀어나가야 하는 숙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촌은 젊은 예술가들이 활동하기에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곳이라고 말하는 그는 앞으로 신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Q. 2018년에 ‘제1회 신촌거리예술축제’를 시작하셨는데요. 어떤 축제인가요?

신촌거리예술축제는 최계바라 기획사에서 처음 기획해서 개최한 거리예술축제입니다. 2018년 첫 번째 축제를 열고, 이듬해인 2019년 두 번째 신촌거리예술축제를 개최했었습니다.

사실 신촌에는 매년 다양한 축제와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춘’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이곳 신촌에 기존의 행사들과 차별화된 신촌만의 이야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고, 그런 생각이 신촌거리예술축제를 기획하게 했습니다.

신촌거리예술축제는 신진예술가들을 위한 축제의 장입니다. 사실 기존 거리예술축제의 경우, 이제 막 시작하거나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진예술가들이 진입하기에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이에 저희는 신진예술가들로만 선정하고 있고, 신청서에도 작품에 대한 소개 외에는 어떤 경력 사항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사진설명 : 제2회 신촌거리예술축제 모습. 신촌거리예술축제는 신진예술가들을 위한 축제의 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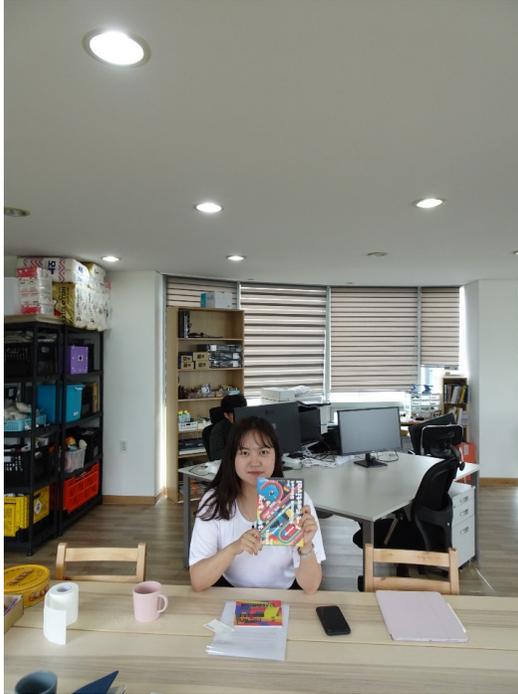
Q. 1회와 달리 2회 축제에서는 100% 자비를 들여서 축제를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처음 축제를 시작한 1회 때는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일부분 지원금을 받고, 여기에 저희 자금을 더해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진행할 때는增高민이 되더라고요. 지원 예산을 받아 진행하면 좀 더 수월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순수 거리예술축제 대부분은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수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축제를 진행하면 어떻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조금 힘들지만,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게 된 거죠.

Q. 신촌에서 축제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저희는 공연을 준비하는 예술가들이 신촌에서 창작과 시연을 함께 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준비했지만 준비하는 예술가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회 때는 창천문화공원 내의 파랑고래와 연결해서 공간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잘 가지지는 않더라고요. 대신 공연을 시연하기에는 아주 좋았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역시 상인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저희가 축제를 준비하면서 서대문구청이나 신촌상인회와 협의를 하고 공문을 보내드리기도 했지만, 막상 축제 당일에는 인근 상인들이 관련 내용을 공유받지 못해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축제를 준비하면서 아무리 협의를 해도 상인들과의 관계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축제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매년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된

다면 앞으로 어떻게 축제를 진행해야 할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직은 축제를 한다고 해서 유동인구가 늘어난다는 생각보다는 자신들의 영업을 방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진설명 : 신촌거리예술축제를 기획한 정경원 씨. 신촌이 신진예술가들을 위한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한다.〉

Q.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들에게 신촌은 매력적인 곳인가요?

두 번의 축제를 진행하면서 신촌은 신진예술가들이 공연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공연 기획자로 또는 활동가로 공연을 하면서 늘 가졌던 딜레마 중 하나가 사람들이 공연장에 와서 공연을 보기까지 큰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신진예술가라면 더 심하겠지요. 아무리 좋은 공연을 준비해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신진예술가들은 많은 사람과 만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만 와서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거리예술축제는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편하게 공연을 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장점을 가집니다. 특히 신촌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가 더 큰 곳이죠. 아무리 좋은 장소여도 오가는 사람들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간이 넓기 때문에 무대와 부스를 설치할 수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간혹 ‘신촌 상권이 죽었다’는 말들을 하시는데요. 직접 축제를 기획하고 실행해 본 입장에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신촌의 상권이 죽었다는 말에 대해 실제 수치적으로 상권이 위축되었다기 보다는 ‘심리적’ 요인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두 번째 축제를 진행 하면서 신촌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을 모시고 ‘왜 우리는 신촌에 있는가’라는 주제로 테이블 토크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참여한 분들이 대부분 30대였는데, 자신들이 20대 때는 좀 더 신촌의 가게들이 특색이 있었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더군요. 심리적으로 ‘내가 이는 신촌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신촌은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입니다.

Q. 2020년에는 신촌거리예술축제를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신촌이라는 공간에 애정이 많고, 앞으로도 신촌거리예술축제는 계속 이어 나가고 싶습니다. 다만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명확하게 답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을 마련한 후에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신 저희는 신촌거리예술축제를 했던 경험을 살려 ‘00거리예술축제’라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지원을 받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전국의 숨어있는 거리를 찾아 다양한 거리예술축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를 신촌거리예술축제와 연계해 확장해 나가는 것도 고민 중입니다.

2) “요즘 신촌? 다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신촌극장, 전진모 대표

신촌의 한적한 주택가 옥상에 문을 연 신촌극장은 연극, 무용 등 다양한 형태의 공연과 전시가 진행되는 소극장이다. 2017년 신촌극장을 시작한 전진모 씨는 연세대학교 출신으로 신촌에서 대학 생활을 했다. 졸업 후에도 자주 신촌에 와서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신촌을 떠난 적은 없다고 말한다.

그가 신촌에 소극장을 열 당시만 해도 기존의 소극장들이 모두 문을 닫고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신촌극장을 포함해 5개의 소극장이 신촌에 다시 문을 열었다. 젊은 예술가의 입장에서 신촌을 바라봤을 때, 신촌은 문화 예술적 자산이 충분한 곳이라고 말하는 전진모 씨. 신촌의 가장 큰 자산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중에서도 20대의 에너지가 문화예술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하는 그는 신촌은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와 같은 대학으로 인해 학생들이 있고, 그런 학생들이 모여 시대의 이슈를 풀기 위해 토론하고, 음악과 연극 등으로 발산할 수 있다고 한다.

Q. 우선, 신촌극장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신촌극장은 2017년에 개관한 소극장으로 연극, 무용과 같은 공연 예술을 하는 곳입니다. 주택가 안, 옥상에 블랙박스 형태로 장르를 넘나들며 다양한 공연을 기획하고, 대관하고 있습니다.

Q. 대표님에게 신촌은 어떤 곳이었나요?

저는 2000년에 연세대에 입학하면서 신촌에서 생활했습니다. 졸업 후에도 늘 사람을 만나러 신촌에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늘 신촌에 적을 두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완전히 신촌을 떠난 시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신촌은 늘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모든 걸 신촌에서 해결했어요. 굳이 다른 지역에 갈 필요가 없었죠. 제 기억에 홍대 앞에도 재미있는 공간이 몇몇 있긴 했지만, 대부분 신촌에서 모든 걸 해결 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설명 : 신촌극장 입구. 신촌극장은 조용한 주택가 옥탑에 자리하고 있다.〉

Q. 그렇다면, 언제부터 사람들이 신촌을 벗어나기 시작했다고 보시나요?

2010년 전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즈음 사람들이 공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거리’ 자체를 소비하기 시작하면서 이태원 거리단길이나 가로수길, 삼청동이나 홍대 앞 등 힙한 거리에 가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버스 환승이 가능해지면서 이동도 편리해져서 활동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대학가 문화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흔히들 말하는 신입생 환영회와 같은 단체 모임이 사라지면서 점차 개인의 취향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Q. 그러면서 신촌에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한 건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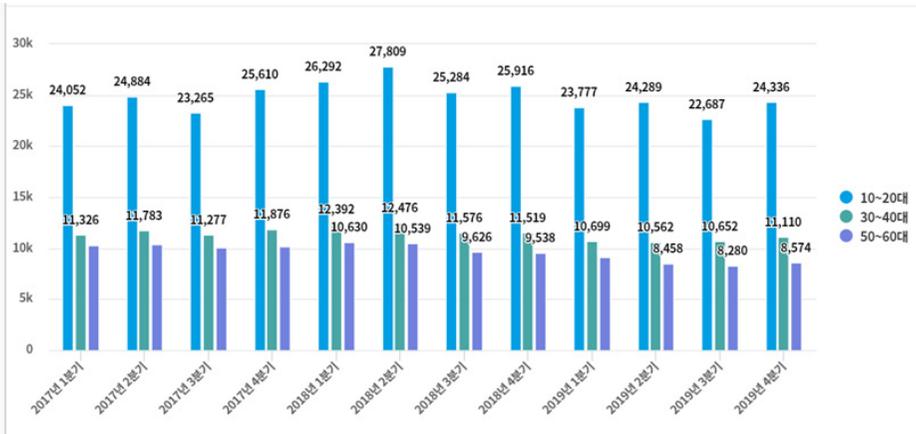
사실 저는 신촌에 맛집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신촌에 있는 가게들이 자신들만의 특징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신촌까지 와서 먹을 만큼 맛있는 집이 없었던 거죠. 홍보할 거리도,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촌을 소비하던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취향이 세분화되면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걸 찾아서 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취향이 없는 신촌이 쇠퇴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취향이 없어진 거리를 채운 것이 바로 기업형 프랜차이즈들입니다. 그나마 있던 신촌의 문화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Q. 그렇다면 대표님은 왜 다시 신촌으로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인으로서 신촌은 여전히 매력적인 곳인가요?

저는 신촌이 문화 예술적 자산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문화예술에 있어 20대가 만들어 내는 에너지로 성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촌은 바로 그 20대들이 많이 활동하는 지역입니다. 여기 학생들이 술자리에서 단순히 사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시대의 이슈와 그 이슈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토론하고, 그걸 다시 음악과 연극 등으로 발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단 신촌만이 아니라 모든 대학가가 가진 문화예술의 자양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 3-1] 연령대별 길 단위 상존인구 밀도



〈그림설명 : 대표적인 대학가인 신촌에는 10~20대의 방문 비중이 높은 곳이며, 30~40대의 경우 변화폭이 크지 않지만 꾸준한 것을 알 수 있다.〉 (자료 : 우리마을가게)

Q. 2017년 신촌극장을 개관하면서, 신촌극장이 이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셨나요?

신촌극장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신촌의 소극장들이 모두 문을 닫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촌극장을 준비하는 시기에 마침 서대문구청에서도 도시재생 관련해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파랑고래, 신촌문화발전소 등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지금은 신촌 지역의 소극장이 신촌극장 포함해 3곳이나 됩니다.

제가 처음 신촌극장을 만들기로 하면서 어디 가지 않아도, 뭔가 할 수 있는 공간이 신촌에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다 보면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한 거죠.

3년 동안 공간을 운영하면서 미세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공연을 보러 오는 관객이 관계자에서 일반 관객으로 늘어난다거나 하는 거죠. 그렇게 신촌에도 문화예술과 관련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신촌극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서대문구청의 그런 노력이 신촌 문화를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크진 않지만 미세한 영향은 미쳤다고 봅니다. 그동안 신촌에 큰 이슈가 없었음에도 다시 사람이 많아진 것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직은 신촌 내부에서 변화를 주도할 만한 에너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레트로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마저도 신촌의 변화라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의 신촌에는 특징이라고 할만한 게 없었기 때문에 콘셉트가 있는 가게의 등장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Q. 요즘 신촌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 험한 거리에 집중했다면 요즘은 다시 '로컬'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에 나만의 아지트를 만드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신촌의 오래된 가게들을 보물처럼 찾아다니기도 하는데 그런 걸 보면 그런 변화들이 신촌에도 작지만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고 봅니다.

04. 결론 및 시사점

“사람들은 왜, 신촌을 떠났을까?”

사람들은 왜? 그리고 언제부터 신촌을 떠났을까? 이 단순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6명의 신촌 사람들을 만났다.

먼저 ‘사람들이 왜, 신촌을 떠났는가’에 대한 질문에 신촌 문화를 소비했던 송선영 씨와 김장현 씨는 개인의 취향이 다양해지는 반면 신촌은 그런 흐름을 잘 쫓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촌을 떠나기 시작했다고 봤다. 그리고 2000년대 신촌에서 대학 생활을 한 신촌극장의 전진모 대표도 다양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신촌이 아닌 홍대나 이태원, 서촌 등과 같은 지역으로 흩어졌다고 이와 비슷하게 답했다. 신촌 상권이 변화에 둔감했던 이유에 대해 전 대표는 신촌이 대학 상권이라는 특성을 가진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신촌은 취향이 없는 곳이었다”고 말할 만큼 상인들이 자신들만의 매력을 어필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매출이 발생했기 때문에 홍대 앞이나 성수, 이태원처럼 다양한 콘셉트의 공간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의 그의 생각이다. 여기에 임대료 상승과 기업형 프랜차이즈의 등장으로 신촌만의 개성이 사라지자 신촌을 찾는 사람들이 줄었을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신촌 상권이 침체되기 시작했을까. 이에 대해 신촌의 오래된 사람들인 우드스탁의 문진웅 대표와 신촌상인회의 홍선호 회장은 공통적으로 2000년을 기준으로 신촌 상권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고 답한다. 문진웅 대표는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신촌을 중심으로 록카페 단속이 심했고, 이러한 단속으로 인해 상권이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반면 홍선호 회장은 2000년을 기점으로 신촌에 기업형 프랜차이즈가 입점하며 신촌 상권의 임대료가 상승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당시 임대료가 높아지면서 소규모 점포들은 신촌을 벗어나 홍대 앞 또는 타지역으로 이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홍 회장의 말에 의하면 지금도 신촌 상권의 메인인 연세로에는 기업형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은 입점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신촌은 젊은 예술가들에겐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공간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신촌 연세로에서 ‘신촌거리예술축제’를 기획한 정경원 씨는 신촌을 두고 ‘신진예술가들이 공연하기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소규모 문화공연, 특히 거리예술의 경우 좋은 공연을 발견할 수 있는 ‘우연성’이 중요한데, 신촌의 거리야말로 이런 우연성을 발휘하기 가장 좋은 공간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공연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신진예술가가 하는 것이라면 극장까지 찾아와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촌은 평소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오가며 자연스럽게 공연을 접할 수 있는 거죠”라는 정경원 씨의 말처럼, 신촌은 신진예술가들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인적 자원도 풍부하다. 전진모 대표는 “문화예술에 있어 20대가 가지는 에너지가 중요하다”며 신촌은 바로 그런 20대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지역 중 하나라는 것이다. 학생들이 모여 술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술자리에서 모여 시대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이것을 다시 문화예술로 발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신촌에 다시 젊은 문화예술인들이 모여 다양한 활동을 시작한다면, 80년대 신촌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소극장과 언더그라운드 음악이 넘치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행스러운 것은 정경원 씨와 전진모 대표와 같은 젊은 문화예술인들이 신촌에 활동하는 데 있어 서대문구청과 같은 관에서도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신촌동 도시재생사업은 바로 이런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문화예술 활동은 단순히 관 주도보다는 문화예술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다. 이를 위해서는 젊은 문화예술인들에게 ‘신촌은 열린 공간’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유연한 태도 필요

그러나 신촌은 젊은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기에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우선 정경원 씨도 지적했지만 실제로 축제가 진행되는 점포들과의 관계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경원 씨의 설명에 따르면, 서대문구청과 신촌상인회와 사전에 조율한 내용도 실제 축제 당일 이 되면 언성이 높아지는 일이 발생하곤 했다는 것이다. 사실 이런 문제는 축제를 진행하는 단체에서 미연에 방지하기란 쉽지 않다. 더욱이 이미 몇 회째 축제를 진행하며, 공신력을 가지지 않는 소규모 행사의 경우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촌에서 주류 소통 창구인 서대문구청과 신촌상인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신촌의 상인들도 눈앞의 이익만을 좇을 것이 아니라 신촌 상권이 활성화되어 개개인의 점포도 경쟁력을 가지고 오랫동안 장사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관과 민에서는 이러한 주제로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사람들이 신촌을 떠난 이유에 대해 여러 인터뷰이들은 신촌이 새로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대신 기존의 방식을 고수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듯이, 앞으로 신촌이 과거의 신촌을 추억하는 중장년 세대와 새로운 문화를 즐기고자 하는 10·20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경쟁력 있는 상권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요즘 신촌? 조금씩 활기를 찾고 있다

인터뷰를 준비하며 궁금했던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신촌에서 진행되는 여러 축제에 대해 신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였다. 굳이 신촌이 아니더라도 관 주도의 행사들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촌에는 서대문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만도 무려 10개가 된다. 대부분 하루, 또는 이틀 동안 진행되는 이런 단발성 행사가 신촌 상권을 살리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러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신촌 사람들은 일회성 축제라도 신촌을 알릴 수 있는 축제라면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낫다는 의견이었다.

신촌상인회 홍성호 회장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며 무엇이든 ‘신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2번, 3번 계속 오게 하는 것은 상인들 몫이라고 말한다.

다만 우드스탁의 문진웅 대표는 진정성 있게 지속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며, 지역의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된다면 효과가 더 높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서대문구청에서 진행하는 김현식 가요제와 김현식 골목길, 김현식 동상 등을 세우는 등 신촌만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능성을 보았다고 한다.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두 사람 모두 요즘 신촌이 예전에 비해 활기가 느껴진다고 한다. 문진웅 대표는 “사람들이 신촌을 빠져나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는데, 홍성호 회장도 마찬가지로 “상인들의 마인드가 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니 과거의 침체했던 경험이 지금 신촌을 다시 살리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촌 상권이 '살아났다'고 말하기는 이르다. 서대문구청이 2015년 신촌의 1,679개 점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5%가 매출이 하락했다고 한다. 지하철 2호선 신촌역의 유동인구를 살펴보면, 하루 평균 승하차 인원이 2011년에 11만 3,810명에서 2017년 약 10만 228명으로 줄었다고 한다. 이처럼 유동인구의 감소가 신촌 상권의 회복을 지연하고 있다.(연세춘추, 2018.10.08.)

그러나 신촌 상권의 회복을 단순히 수치적으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이는 신촌 지역 상인은 물론 서대문구청과 같이 신촌을 둘러싼 사람들이 이미 침체된 신촌 상권에 대해 충분히 공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연구를 통해 신촌 상권이 다시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신촌 상권의 전성기였던 70~90년대처럼 신촌만이 가지는 독특한 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지역이 아닌 신촌에 가야만 느낄 수 있는 분위기와 문화를 말한다. 사람들이 신촌을 떠난 이유는 결국 신촌이 아니어도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답도 그 안에 있을 것이다. 관과 민이 함께 사람들이 신촌을 가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의 지자체 사업을 보면서 단발성 행사라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번 김현식 골목길 조성 사업을 보면서도 뭔가 해보겠다는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신촌의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해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신촌을 다시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_ 우드스탁, 문진웅 대표

“일단 신촌에서 크든 작든 뭔가를 한다는 게 좋은 거죠. ‘신촌에서 뭔가를 하는구나’라는 움직임이 보여 주면 좋죠. 일회성 행사라도 신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_ 신촌상인회, 홍성호 회장

참고문헌

- 서울역사박물관, 2017, 2016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_ 신촌, 청년문화를 품은 개척지, 서울역사박물관
- 서울시, 2019, Re_서울:함께 읽는 도시재생 시작할 때, 신촌, 서울시
- 김수아·백미숙, 2013, 서울시 문화공간의 담론적 구성 : 홍대 공간을 중심으로, 서울연구원
- 김희동, 2017, 안티테제로서의 홍대인디: 홍대 앞 인이음악씬의 형성과 분화, 서울대학교 인류학석사학위논문
- 김지현, 2018, 신촌상권에 미치는 영향분석 _ 연세대학교 학생 수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국토계획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혜원·이정욱, 2018,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어떻게 성공적으로 도입되었는가? : 다중흐름모형과 정치적 관리의 관점을 중심으로
- 건축과도시공간, Vol.18, (2015년 여름호),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보행친화도시 서울 조성, 동아일보, 2016. 11. 25 젊음 되찾는 신촌 “창업-문화공간으로”
- 도시미래신문, 2015. 11. 23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한 구도심 재활성화
- 서부뉴스, 2018. 08. 29 “70~90년대 최전성기 신촌 청년문화 한눈에”
- 연합뉴스, 2016. 11. 30 “도시재생, 신촌 젊음이 넘치는 대학가로 부활 꿈꾼다
- 인사이트, 2018. 03. 14 “신촌역 3번 출구 앞 맥도날드, 20년 만에 사라지다”
- 아시아경제, 2020. 08. 06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신촌 일대 청년창업거점과 입주시설 연결하는 신촌 벤처밸리 조성”
- 인사이드케이بل, 2020. 06. 23 “신촌도시재생사업… 무너진 상권 살리나?”
- 조선일보, 2018. 07. 30 “명동, 강남, 홍대… 서울의 핵심 상권마저 줄폐업”
- 서울신문, 2019. 09. 15 “핫플레이스 경리단길 몰락”
- 서울신문, 2019. 10. 09 “광화문, 이태원, 홍대 줄줄이 빈 가게 늘고 있다”

- 머니S, 2019. 11. 19 "발길 끊기는 젊음의 거리 상가"
- 머니S, 2019. 11. 20 "홍대, 대학로... 월세 절반으로 낮춰도 안 나가요"
- 한겨레21, 제901호, 2012. 03. 07 "돌아온 3040, 젊음의 행진"
- 연세춘추, 2018. 10. 08 "하나둘 꺼진 신촌의 불빛, 옛 명성 회복할 수 있을까"
- 식품외식경제, 2015. 09. 11 "신촌상권 살려라... 서대문구, 번영회 맞손"
- 라이프점프, 2020. 06. 16 "서울형 도시재생 5년... 되살아난 골목공동체"
- 아시아경제, 2014. 07. 28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설치 후 교통사고 34% 감소"

작은연구 좋은서울 19-12

**사람들은 왜
신촌을 떠났을까**

발행인 서왕진

발행일 2020년 8월 12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비매품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이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



서울연구원은 서울특별시의 출연에 의해
1992년 10월 설립된 독립적인 재단법인이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의 당면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주요 시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연구·개발함으로써
서울의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서울의 도시문제에 대한
더욱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보고서, 단행본, 정기간행물 등을 발간하고 있다.

www.si.re.kr
twitter.com/seoulinstitute
www.facebook.com/SeoulInstitute

비매품